

‘베이징 꿈’ 이룰 때까지 ‘끝없는 질주’

스포츠 포커스

나주시청 사이클 유진아

“꿈이요? 베이징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는 것이지요.” 수줍게 얼굴을 붉히며 자신의 꿈을 이야기 하는 국내 제일의 여자 실업 사이클 선수 유진아(여·23·나주시청). 고교 때부터 그녀의 옆에는 항상 최고라는 찬사가 따라다녔다.

그렇지만 이런 그녀에게도 역시 올림픽 출전은 꿈일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 여자 사이클이 베이징올림픽에서 포인트 경기 한 종목에서만 티켓을 획득했기 때문이다.

그만큼 경쟁이 심하다. 특히 유진아에게는 베이징으로 가는 길목이 유난히 좁아 보인다.

자신을 믿고 열심히 페달을 밟으면 어떤 경쟁도 자신 있는 그녀지만 지난해 갑자기 찾아온 무릎과 발부상은 한 때 운동을 그만 둘 생각까지 들게 할 정도로 자신있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녀는 지금까지 중·장거리보다는 단거리에서 두각을 나타냈기 때문에 24km를 달려야 하는 포인트 경기는 그만큼 그녀를 주눅들게 하기 충분하다.

하지만 현재 그녀의 상태는 이제까지 운동을 했던 기간 중 가장 최고의 기분을 유지하고 있다.

최근 끝난 대통령배사이클 대회 단체스프린트, 3km 단체추발, 500m독주에서 우승하며 여자실업 최우수 선수상을 획득했기 때문이다. 대통령배에서 우승하고, 최우수선수상을 받아서가 아니다. 지난해 찾아온 부상을 회복하고 일군 자신에 대한 견제함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최우수선수상을 받았을 때 유진아는 마음속으로 평평 눈물을 흘렸다. 이제 됐다. 다시 자전거를 탈 수 있다는 생각뿐이었다.

유진아는 나주 다시초등 6학년 때 사이클에 처음

부상 뒀고 대통령배 MVP 차지

올림픽 출전권 획득 위해

하루 6시간씩 지옥훈련 실시

입문했다. 그리고 다시중 1년 때 선수로서 활약을 시작해 3학년때는 소년체전에서 200m,500m,단체전 3관왕에 올라 사이클계에 이름을 알리고 시작했고, 전남미용고에 진학해 각종 대회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최고의 선수로 각광받았다. 고3 전국체전에서는 500m, 스프린트, 단체스프린트, 단체 등 4관왕에 오르는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그리고 2004년 고향의 실업팀인 나주시청에 입단, 아시안게임에서 2개의 동메달을 획득하는 등 실업최고의 선수로 베이징 올림픽을 노리고 있다.

유진아는 그녀의 사이클 인생의 스승에 대해 양재환 전남사이클연맹 전무이사(나주시청 감독)를 꼽는다. 그녀가 사이클에 입문할 때부터 자신을 봐왔고, 코흘리개 선수가 이제는 어엿한 숙녀가 돼 소속팀 감독으로 모시게 됐다.

양재환 전무는 “진아는 거의 전천후 선수로 봐야 한다”며 “근력이 뛰어나 파워가 날다르고, 심폐기능이 뛰어난 선수다”고 제자 사랑을 숨기지 않는다.

“하지만 큰 오르막에 약하고 지구력이 부족한 것이 흠이다”며 조언을 아끼지 않는다. 그래서 최근 유진아는 지구력 향상 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곧 있을 청주MBC배 등 2개 대회의 성적이 올림픽 출전 티켓의 향방을 가르기 때문이다. 국내대회 선발도 문제지만 베이징올림픽에서 한국이 선정된 종목이 포인트 경기 때문이기에

저러 지구력향상에 매달릴 수밖에 없다.

그녀는 도로에서 3~4시간을 쉬지 않고 자전거를 타고, 트랙에서는 하루 6시간 동안 사이클과 씨름하며 땀을 흘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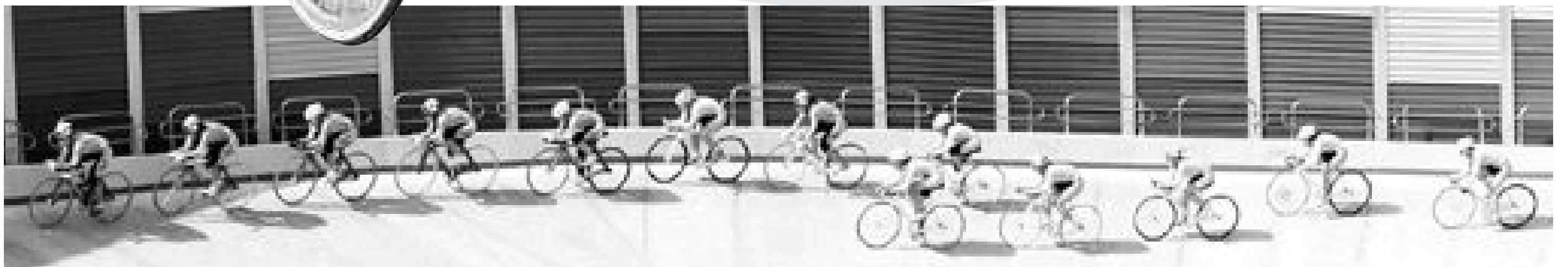
지난해 부상에서 벗어나 혹시 재발 위험에 대해 염려하지 않냐는 기자의 질문에 “사이클을 떠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저에게 불행인지 알았다”며 “벨로드롬에서 자전거를 탈 수 있다는 것보다 행복한 것은 없다”고 웃었다.

평소 책임감을 좋아하고 십자수를 놓는 찬상 여자인 유진아는 벨로드롬에 들어선 순간 질주 본능이 살아나는 사이클 선수로 변한다. 유진아는 “베이징 올림픽에 출전해 평소 가졌던 꿈을 위해 달리고 싶다”며 “아직 나이가 있어 올림픽에 대한 꿈은 계속 될 것이다”고 말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 사진 왼쪽부터 강은미·유진아·노효성·나희경·강덕조·이은지선수. 양재환 전남사이클연맹 전무이사 겸 나주시청 감독.



작은만남 큰 기쁨
광주일보 친절하 서비스와 고객의 입장에서 모시겠습니다.

개업·성업 안내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는 —
독자 서비스국(062)220-0551

운남직업소개소

광산구 월곡동511-7LG전자 뒤편
미장·조리·헬스·타일·장보·보일러·잡수리·전기수도
소장 이동식
☎(062)956-3727

정원

동구 금동 구시청사거리
일식전문,아외도시락,참치전문
대표 노동찬
☎(062)366-8000

행정사김종욱

동구 지산동 법원 앞
법률 무료상담
☎(062)225-3053

굿셀(화정점)

화정동 염주시거리 광주은행맞은편
삼양 제백스가 만든
건강식품 전문매장
☎(062)371-8998

김명선헤어갤러리

북구 연제동 현대@싱가
친절과 성실한곳
원장 김명선
☎(062)573-1119

나드리여행사

서구 쌍촌동 CBS방송건너
국내 해외여행 수시상담(금강산관광,수학여행)
대표 김봉탁
☎(062)374-9696

네비게이션A/S센터

광산구 도천동 하남공대(8번도로)주유소옆
노비네비게이션A/S전문센터
모든기종 네비 업데이트전문점
☎(062)954-9974-5

금강디지털보청기

북구 우산동 말배우시장거리 우라병원건너편
최첨단컴퓨터시스템 보청기업체 최대2건A/S
대표 황점동
☎(062)266-9960

본가전복(본점)

서구 쌍촌동 금호지구 CBS방송국과GS칼텍스뒤
전복 해물탕 전문점 단체손님 환영
대표 이정봉
☎(062)374-6866

광주브러러리

동구 신수동 두암타운 입구 삼거리
전복요리 전문점,독일식 정통맥주
단체모임,피로연,각종모임 단체환영
☎(062)251-4525

떡쌈시대양산점

양산동 양산택지사거리
지글지글 삼겹! 풀깃풀깃 떡쌈!
대표 선복인
☎(062)224-3916

토방

동구 공동 예술의거리 공동주차장앞
한식, 한정식전문
대표 신정호
☎(062)222-9840

골드공인중개사

서구 금호동 일신@건너
동산,부동산전문
대표 이용주
☎(062)385-7888

이레디자인

북구 북동 수창초교교육교앞
상업공간, APT리모델링, 실내인테리어
대표 김남수
☎(062)529-8567

창평국밥

북구 양산동 신흥택지건너
각종국밥 전문점
대표 이한승
☎(062)571-2566

진월카손세차

남구 주월동 대평여고와 금영프리미@옆
손세차, 실내크리닉, 경정비
대표 이유승
☎(062)675-4214

유진다방

동구 신수동 오거리 유진탕 지하
아늑한 분위기 찾집
대표 선복인
☎(062)224-3916

광주청호담철학

동구 계림5거리 3복주차장 옆
명리학,작명,궁합,택일,수맥
대표 이석환
☎(062)575-3366

석곡숯불갈비

서구 쌍촌동 금호베아스터은1층
참나무숯불지갈비,참나무숯불목살구이
한방계장백반 단체손님환영
☎(062)383-4362

콩마음청국장

북구 두암동 무등파크3차 @정문앞
버섯이채청국장,우량청국장,다슬기해장국
모듬버섯전골,김치고기청국장,해물부추청국장
☎(062)262-7732

쌍미가

남구 봉선동 수협옆골목
생선구이조림 정식전문
대표 박미화
☎(062)369-0013

태평선식(화정점)

서구 화정동 염주시거리 광주은행맞은편
영양식, 환자식, 체질식등
건강 기능식품
☎(062)371-8998

범무사정혼연사무소

동구 지산동 법원 후문 옆
등기,법인설립,개인회생,파산
가사,호적,가압류,가처분
☎(062)232-3002

광주청호담철학

동구 계림5거리 3복주차장 옆
명리학,작명,궁합,택일,수맥
대표 류중철
☎(062)224-7649

이안컴퓨터

양산동 양산사거리
컴퓨터 렌탈및 A/S전문,PC판매
컴퓨터 렌탈전문
☎(062)433-1220

한백년결혼정보

동구 계림동 마사회건너2층
초혼,재혼 국내,국제전문
대표 최한주
☎(062)527-6672